



주간 통일정세

2013-0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협의회' 참석 홍승무는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1/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서 '중대조치 결심'을 표명한 회의 참석자 중 잘 알려지지 않은 홍승무 당 부부장은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당 기계공업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노동당 부부장이라고 소개한 홍승무는 북한 노동당의 기계공업부 부부장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北김정은, 당세포대회 개회사··"대회는 김정일 유훈"(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8일 열린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했다"며 "김정일 동지께서 앞으로 당세포비서대회를 1만 명 규모로 크게 조직해 당세포를 강화하는 데서 세포비서들이 한몫하도록 할 데 대한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밝힘.
 - 또, 김 제1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는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해 당 사업 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 것을 결심했다"며 당세포의 역할 강화를 주문함.

- **北김기남 당비서 "당원·근로자 전투동원태세 갖춰야"(1/29, 노동신문)**
 -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가 2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4차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비난하며 당원과 근로자들의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전함.
 - 김 비서는 이 대회 보고에서 "경제강국 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 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강화도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으로 지향되게 해야 하겠다"며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워 일단 유사시에는 전면항쟁에 떨쳐나설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며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게 해야 하겠다"고 말함.
 - 또 "우리의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걸고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적대행위로 하여 오늘 우리나라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며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념과 멸적의 투지를 가지고 나



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불려일으켜야 하겠다"고 강조함.

● 北김정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해야"(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9일 제4차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는 주체혁명 위업 수행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대회로 우리 당 역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확고한 지침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수령님 식, 장군님 식으로 모든 것을 작전하고 설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또 "대회 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 비서들은 이번 당세포 비서 대회의 정신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세포 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의 거창한 실천에서 대회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 北김정은 "당내 관료주의자 뿌리 뽑아야"(1/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둘째 회의에서 당내의 세도가와 관료주의자의 척결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29일 연설에서 "(당내의) 세도군(세도가),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히 쳐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이라며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회원에 돌아난 독초와 같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벌초만 할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했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지금 적지 않은 당세포들에서는 당의 방침과 지시를 전달이나 하고 그것을 관철하자고 호소나 하는 식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군중을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하는 데서 청년들과의 사업에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함. 또한, 그는 "당세포를 강화하는 것이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되기 때문에 당중앙은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있는 다음 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첫 대회로 세포비서 대회를 소집했다"며 "이번 대회를 당대회와 당대표자회에 못지않게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29일 대회 폐막사에서 "우리는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확고한 지침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수령님 식, 장군



님 식으로 모든 것을 작전하고 설계해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기야 한다"고 말함.

● **정부 "北 대풍그룹 해체...우동측 건강이상설"(2/1, 연합뉴스)**

- 북한의 외자 유치 기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해체됐다고 정부가 1일 확인한 것을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북한 권력기구도'에서 당초 당 외곽기구로 분류했던 대풍그룹을 삭제함. 대풍그룹은 2010년 1월 북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개발은행의 투자유치 창구로 본격 활동을 시작, 금강산 해외관광객 유치 등에 관여해왔지만 실적 부진으로 해체된 것으로 보임.

● **北, 당세포비서 강습...김정은에 대한 충성 강조(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전함.
- 방송은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와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 당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과 대회 참가자들이 강습에 참가했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당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2/2,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2일 전함.
- 방송은 "(촬영장에 나온) 김정은 원수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라며 "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 밑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한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 **北, 홍승무에 김정일훈장...로켓 발사 기여자 표창(종합)(2/2,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달 2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서 '국가적 중대조치'를 결심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 참석했던 홍승무 노동당 부부장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북한 매체들은 2일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로켓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하는 등 추가로 표창했다고 전함.



- **北 노동신문에 김정은·당세포비서 기념사진 '도배'(2/3,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노동당 세포 비서대회 참가자들과 찍은 사진들로 총 4개 면을 도배함.
 - 노동신문은 이날 김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을 전하며 총 6개 면 중 2~5면에 김 제1위원장과 당세포 비서들의 기념사진을 10장이나 실음.
 - 사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맨 앞줄에 앉은 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지도부의 자리는 같지만 둘째 줄부터 서 있는 당세포 비서들만 바뀜.

■ **김정은동향**

- 1/29, 김정은 黨 제1비서, 1.28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석 및 개회사 (1.29, 중통·중방)
- 1/30,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설·폐회사 등 2일 회의 진행(각급 단위 세포비서들 토론 및 '맹세문' 채택 등) 및 폐막(1.30, 중통·중방)
- 2/2,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2.2,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리병삼, 조연준 동행
 - 黨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2.2 평양 일정 마치고 귀향(2.2, 중통)
- 2/3, 北, 김정은 黨 제1비서 참가下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진행 (2.3, 중통·중·평방)
 - 黨 중앙군사위원들, 軍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 대연합부대 지휘성원들 등 참가
 - 軍力 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 토의 및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함.



■ 기타 (대내 정치)

-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인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 착공식, 1.30 평북 향산군에서 진행(1.30,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착공사), 김기남, 곽범기, 로두철 등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함흥시에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친' 혁명사적지건설관리국 함경남도여단 등 '감사' 전달(2.2,중방)
- 黨 세포비서 7명(김순옥, 유원지총국 중앙동물원 수류2작업반장 등)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수여식, 2.1 평양체육관에서 진행(2.1,중방·중통)
 - 김영남·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조연준·태종수 등 참관

나. 경제

- 北김정은 '통치 2년' 쌀값·환율 불안정 여전(1/31, 데일리NK)
 -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각종 경제지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31일 데일리NK가 보도함.
 - 특히 쌀값과 환율은 1년 전과 비교해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2~9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은 2주 전과 비교해 1kg당 각각 300원, 200원, 100원 오른 6천700원, 7천원, 6천600원을 기록함.

다. 사회·문화

- 北평양방송 내달 웹사이트 개설(1/2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2월1일 웹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29일 전함.
 - 방송은 이날 "2013년 2월1일 평양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민족대단결'을 개설한다"며 "새로 개설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민족대단결은 7천만 우리 민족이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아래 통일조국 건설에 떨쳐나서게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평양방송은 1967년 중앙방송에서 분리돼 대남 및 대외방송을 전담하는 조선제2중앙방송으로 출발했으며, 1972년 11월10일 현재 이름으로 개칭함.
- 北,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 착공(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강성국가 건설의 대표적 시설로 강조해온 희천발전소의 2단계 공사인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시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통신은 이날 평안북도 향산군에서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곽범기 당비서, 로두철 부총리와 건설에 동원된 일꾼, 향산군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고 최 총리가 착공사를 했다고 보도함.
 -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희천발전소가 완공됐을 때 2단계 공사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천강 주변의 농경지와 주민 지역을 큰물(홍수) 피해에서 보호하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의 공업용수를 원만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노동신문 "北선수 6명, 국제체조연맹 기술 등록"(2/1,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북한 체조 선수의 이름으로 국제 체조연맹(FIG)에 등록된 기술이 6개라며 기술을 상세히 설명함.
 - 신문이 이날 '조선 사람의 이름으로 명명된 체조 동작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FIG에 등록된 사례로 소개한 것은 북한 체조의 간판 리세광(4·25체육단)의 도마 기술임.
 - 평양 20~50세 시민 60% 휴대전화 보유(2/3, 아주주간(亞洲週刊))
 - 평양에 사는 20~50세 시민 중 6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북한 사회가 휴대전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가 3일 밝힘.
 - 아주주간(亞洲週刊)은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전하며 일부에서는 아이폰과 노키아 제품 등 스마트폰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북한 금성학원 대표단, 중국 첫 방문(1/28, 중국신문사)
 - 북한 최고 문화예술 인재양성기관인 금성학원의 대표단이 196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8일 보도함.
 - 매체에 따르면 오정훈 금성학원 원장과 학생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6일 북한과 접경한 랴오닝성 단둥(丹東)시를 방문했으며, 이들은 '압록강을 노래하며 황금평에 즐겁게 모이자'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북·중 청년교류활동에 참가해 단둥 현지의 중국 학생들과 합동 공연을 펼침.
- 北, 작년 12월 中서 곡물 종자 53t 수입(1/30,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곡물 종자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한의 2012년 대중(對中)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에서 "북한의 지난해 12월 곡물 수입에서 특이한 점은 벼와 옥수수 종자를 각각 36t, 17t 구입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곡물 종자를 수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밝힘.
 - 북한의 ha당 종자 파종량이 벼 120kg, 옥수수가 50kg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수입한 곡물 종자는 각각 300ha(300만m²), 340ha(340만m²)에 파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권 연구위원이 설명함.
- **지난해 北中교역액 또 사상 최대치...60억달러 육박(1/30,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규모가 지난해 60억 달러에 육박,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전년 대비 증가 폭은 5%대에 머물러 근년 들어 계속된 큰 폭의 상승세는 일단 주춤하는 양상을 보임. 30일 중국 세관 당국이 집계한 북중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2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34억 4천 570만 달러, 수입액은 24억 8천 730만 달러로 총 교역규모는 59억 3천 200만 달러로 나타남.
 - **중국 "북한 나선경제무역구법 연내 시행 추진"(1/30, 중국신문사)**
 - 중국이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의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30일 보도함.
 - 지린(吉林)성 경제기술합작국 왕즈허우(王志厚) 국장은 이날 창춘(長春)에서 열린 지린성 제12차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나선경제무역구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초안 작성과 제정을 가속화해 올해 안에 북한이 이를 공포·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왕 국장은 "북한의 이들 법률은 중국 측 인원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과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中서 생맥주 공장 투자자 모집(1/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평양에 생맥주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중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방송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최근 한 산하기관을 통해 게시한 '대북 생맥주 공장 합작 투자자 모집' 공고문을 입수했다며 이것이 전함.
 - 공고문은 우선 일일 생산량 1천ℓ 정도의 소규모 공장으로서 시작해 점차 생산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투자금은 주로 맥주생산에 필요한 설비 설치에 쓰이고 전기와 물, 노동력, 원료와 생산품 수송은 북한이 책임지는 상호합작 형태의 사업이라고 설명함.



- **중국 연변-북한 칠보산 관광 사계절 확대(2/1, 길림신문)**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와 북한 함경북도 회령, 청진, 칠보산을 잇는 관광코스가 사계절 운영될 전망이다라고 현지 매체인 길림신문이 1일 전함.
 - 연변아리랑여행사 연지(延吉)분사와 북한 칠보산여행사는 최근 양측간 의무, 권리, 가격 등에 관한 실무계약을 맺으면서 북한 관광길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실정을 고려, 여름·가을철로 국한했던 이 관광코스 운영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함.

- **北 관광 동남아인 급증(2/2, 자유아시아방송(RFA))**
 - 평양을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작년 성수기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평양 간 정기 항공편이 만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힘.
 - 여행사는 "말레이시아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가 없었던 점도 관광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에 많이 증가한 것이 동남아 관광객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 **中, 의류업체 북한 임가공 첫 승인(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정부가 지린(吉林)성 의류업체의 북한 내 임가공사업을 승인했으며 이는 처음으로 대북 위탁가공을 승인한 사례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함.
 - 방송은 "중국 의류회사 4곳이 지난달부터 위탁가공 형태로 북한에서 의류를 시범생산 중이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의류는 곧 중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중국의 '첫 대북 출경가공 결정' 공고문에 따르면 지린성 훈춘 해관(세관)은 지난달 초 '훈춘운달북장유한공사' 등 관내 기업 4곳에 옷감 등 원자재를 북한으로 가져가 북한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나서 완제품을 중국 국내로 가져와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함.

나. 6자회담(북핵)

- **北 "미국은 참혹한 대가 치르게 될 것"(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또다시 비난하며 미국이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통신은 이날 '미국은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에게는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은 조선 사람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려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 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할 위성들과 장거리 로켓들,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핵실험)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를 겨냥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힘.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인력·장비활동 증가"(1/30, 연합뉴스)**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함경북도 핵실험장에서 최근 인력을 비롯한 차량 등 장비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군과 정보당국은 이런 활동을 핵실험이 당장 임박한 징후로 보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유지하는 정황으로 평가함.
- **北 "美, 日 위성발사는 감싸면서 우리만 문제삼아"(2/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일본이 최근 야간 정찰위성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는 왜 문제시되지 않는가'라는 글에서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저들의 지배주의 야망 실현에 방해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며 "반면에 동맹국이나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묵인·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사축해(부추겨) 우리나라(북한)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도 저들의 손아래 동맹자인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미국이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함.
- **北, 또 위장술...풍계리 갭도입구에 가림막 설치(2/1, 연합뉴스)**
 - 북한이 첩보 위성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핵실험장 갭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핵실험이 이뤄질 곳으로 지목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한 갭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식별됐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이 이날 밝힘. 한 소식통은 "갭도 입구에 지붕 모양의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핵실험 준비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함.
- **조선신보, 美에 "전쟁방지 위한 평화회" 재촉구(2/1, 조선신보)**
 -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조선신보가 1일 또다시 '한반도 평화보장 대화'를 거론하며 북미대화를 촉구함.
 - 신문은 이날 '최후결판의 국면-유엔결의 후의 전면대결전(1) <비핵화중말>, 반미항쟁의 새 단계'라는 글에서 "과거 선례가 보여주듯 '제재'의



가중은 조선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고 정세를 한층 더 격화시킬 뿐"이라며 "평화회담의 개최만이 전쟁방지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최근 고조된 북미 간 갈등국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60여년 전 일어난 전쟁의 마지막 국면일 수 있다. 대결의 역사가 집약된 중대한 분기점에서 조선은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美 나로호 발사 두둔 비난... "이중기준" (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두둔하면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부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적용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재차 위협함.
- 대변인은 이날 문답에서 "우리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제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미국이 남조선의 나로호 발사는 비호두둔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하면서 남조선 괴뢰들의 위성발사는 무작정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과 철면피의 극치"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 군대의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했다"며 "미국의 파렴치한 이중기준과 적대행위는 우리의 초강경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 **3차 북핵실험 임박 관측... 北 "김정은, 중요 결론" (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했다"며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회의는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6자회담 (북핵))

- 중앙통신사 논평(1.28), '北-美 전면대결전에서 우리(北)가 계속 발사할 위성과 장거리 로켓들, 높은 수준의 핵실험은 철두철미 미제를 겨냥할 것'이라고 위협(1.28, 중통/미국은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중통 논평】 미국의 駐韓美軍 핵무기 배치 발표('58.1.29) 관련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 장본인'으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 하다"고 '억제력강화, 전면대결전 지향' 강조(1.26, 중통)
- 北 국방위 성명(1.24), 1.29 UN안보리 공식문건 S/2013/57호로 배포(1.31, 중방)
- 'UN 對北제재 결의'는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의 연장, 최절정'이라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속 강조(2.1, 중통 · 노동신문/세계의 비핵화를 떠난 조선반도 비핵화는 없다)

3. 대남동향

가. 정치 · 군사

- 조선신보 "박근혜정권, 6·15정신으로 돌아설지 주목"(1/28,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8일 남한의 차기 박근혜 정권이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협력 정신을 가리키는 '6·15 정신'으로 전환할지 주목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우리민족끼리가 유일한 출로'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미국, 남한 등이 올해 대북정책 전환의 최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며 "박근혜 정권이 6·15정신으로 돌아서서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오는지 온 겨레가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 "박근혜는 6·15의 덕택으로 2002년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장군님을 만나뵙는 특혜를 지니었으며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북남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겠다고 직접 약속한 바 있다"며 박 당선인이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사실을 언급했다.
 - 그러나 신문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흡수통일' '선택포기'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장의 인수위원직 사퇴 파문을 비난함.
- 北 "南, 동족대결 포기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북한)의 경고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위협함.



- 통신은 이날 '동족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도발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이미 대결분자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밝힘.
-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엄중한 전쟁행위"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올해 초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엄중한 전쟁행위"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비난함.
 - 통신은 이날 '전쟁 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한미 포병들의 흑한기 훈련과 2월 예정된 한미 해병대의 동계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 새 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침략적 기도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함.
 - 논평은 북한의 우주개발 권리를 부정하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적대행위로 한반도에서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이 강행하는 군사연습들은 극도로 첨예화된 조미대결을 전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미 행정부의 모험적인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엄중한 전쟁행위"라고 비난함.
- **北, 판문점 JSA 외곽에 감시용 대형 첩탐 설치(2/3,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외곽에 남쪽을 감시할 수 있는 대형 첩탐 2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군 관계자는 3일 "북측이 작년 12월 우리 군의 동향을 정면과 측면에서 내려볼 수 있는 JSA 서쪽과 동쪽에 대형 첩탐을 1개씩 세웠다"며 "첩탐의 높이는 60m에 달하고 CCTV도 설치돼 주변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우리 정부의 'UN 對北제재 결의 참여 및 광명성-3호 발사 국제사회 공조대응' 지속 비난 및 '南이 동족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北)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장(1.29, 중통)
- 【중통 논평】 통일부 차관의 對北발언(멀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생길 것, 1.23) 관련 '최고존엄을 헐뜯어보려는 대결 악담으로서 정치무지한의 낯두리, 정치만화'라고 실명거론 비난(1.30, 중통/정치무지한의 히스테리적 나발)
- 【중통 논평】 韓美 포병들의 '혹한기훈련'과 韓美해병대 '동계연합훈련'(2월 예정) 관련 '韓-美軍 사이의 전투지휘 및 작전지휘체계를 완비하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계획적, 도발적 불장난소동'이라 비난하며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자주권 保衛' 주장(1.30, 중통/전쟁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외교부 "주요국과 北핵실험시 대응방안 협의중"(1/31,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시 기존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주변국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힘.
-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면서 "북한은 이점을 가볍게 듣지 말고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시에 대비한 안보리 조치 등 대응 방안도 주요국들과 협의해오고 있다"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현 단계에서 밝힐 것은 없다"고 말함. 그는 "북한은 도발이 계속되면 고립만이 기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북한이 불행하게도 그 길을 택한다면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점은 그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우리나라는 2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함.
- 조 대변인은 나로호 발사성공이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불성설"이라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행위도 금지돼 있지만 대한민국이 순수하게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국제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답함.

● 풍계리 핵 실험장에 방사능 계측장비 설치돼(1/31, 연합뉴스)

-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비, 전방부대의 경계태세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31일 "합동참모본부가 일선 전방부대의 경계태세를 높였다"면서 "정보와 작전, 화력 전담 부대는 2단계에 준하는 상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힘. 경계태세 상향 조정으로 일선 부대의 근무 형태도 B형 수준으로 강화됨. 특히 군사분계선(NLL) 등 접적지역의 부대에서는 북한군의 화력 도발에 대응,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25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전반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면서 경계·대비태세, 감시태세를 한 단계 높여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적이 도발하면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함.
-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북 감시자산이 총 가동



되고 있다"면서 "미국 측 자산이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 실험장을 정밀 감시하고 있고 우리 군의 정보자산은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금강(영상)·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을 동원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에 핵실험 후 갱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소식통은 "핵실험장의 수평갱도 속의 핵 기폭장치를 원격 조정해 폭발시키는 '지휘통제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포착되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함. 군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北 "美, 日 위성발사는 감싸면서 우리만 문제 삼아"(2/1,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일본이 최근 야간 정찰위성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는 왜 문제시되지 않는가'라는 글에서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저들의 지배주의 야망 실현에 방해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며 "반면에 동맹국이나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묵인·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사족해(부추겨) 우리나라(북한)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도 저들의 손아래 동맹자인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미국이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함. 앞서 일본은 지난 27일 오후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정보수집위성(정찰위성) 레이더 4호기와 광학실증기(위성)를 실은 H2A 대형 로켓을 발사함.
- 신문은 또 "유엔 성원국들의 자주적 권리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정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맹종맹동하는(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국제기구로 전락했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손탁(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함.

● 美하원 외교위원장 "가장 강한 대북제재해야"(2/3,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가 할 것은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제재를 쓰는 것"이라고 밝힘. 미국 의회 대표단과 방한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일



-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대북제재 종류와 관련,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이 없다"면서 "만약 그들이 은행이나 은행계좌에 대한 제재 때문에 자금(hard currency)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그들의 악행(mischief) 능력에 장애를 줄 것"이라고 금융제재를 거론함. 그는 "우리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했을 때 북한은 장군들에게 돈도 못 주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돈도 얻지 못하는 효과를 봤다"면서 "이 제재는 북한에 정말 상처를 주고 가장 효과적으로,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 제재를 재무부와 행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내가 줌전에 말한 그런 종류의 제재는 절대적으로 비군사적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 "북한은 3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들은 ICBM 개발을 계속하고 미국과 동맹국, 전 세계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는 이어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 등으로 한미 간 입장차가 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도에서 원자력협정 문제를 보겠다"고 밝힘. 또 올해 진행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 것"이라고 언급함.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모든 국가는 일어난 그대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함.
 -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미 의회 대표단은 아시아 지역 순방차 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음. 로이스 위원장은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 파이자 대북 강경파 인사로 꼽힘.

다. 중·북 관계

● 중국, 북한 핵실험 자제 거듭 촉구(1/30,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함.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30일 "관련국들이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키거나 비핵화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철저히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함. 그는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임.
- 홍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는냐는 물음에 "조선(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중국은 유관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과 계속 연락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만 답함. 홍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비핵화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밝혀 핵실험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피력함.



- 한편 흥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첫 위성 우주발사체(로켓) 나로호가 발사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함.

● "中, 북한계 은행 베이징지점 자산 동결 가능성"(2/1,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계 은행의 베이징 지점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일 보도함.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임.
- 안보리는 당시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주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고, 중국은 과거와 달리 이 결의안을 지지했음. 북한은 대외 무역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한계 은행의 베이징지점 자산을 실제로 동결할 경우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적을 전망이다. 북한이 대중 무역시 베이징 지점이 아니라 북중 국경 부근 도시에 있는 금융기관에 결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라. 기 타

●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엄중한 전쟁행위"(1/30, 연합뉴스)

- 북한은 30일 올해 초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엄중한 전쟁행위"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쟁 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한미 포병들의 흑한기 훈련과 2월 예정된 한미 해병대의 동계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 새 전쟁의 도화선에 거어어 불을 달리는 침략적 기도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함.
- 논평은 북한의 우주개발 권리를 부정하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적대행위로 한반도에서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이 강행하는 군사연습들은 극도로 침예화된 조미대결을 전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미 행정부의 모험적인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엄중한 전쟁행위"라고 비난함.
- 논평은 또 "우리의 천만군민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무모한 전쟁도발 책동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위협함.

● 외국인론 "북한, 나로호 발사 핵실험 빌미 삼을 듯"(1/31, 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의 나로호 발사에 반발, 이를 빌미로 3차 핵실험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국 언론들이 전망했음.
-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작년 12월의 장거리 탄도미사



- 일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를 인정할 경우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내다 봤음. 신문은 "한국에서는 2차례의 발사 실패로 배수진을 친 이번 발사 성공에 환호하지만, 이는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음.
- NHK 방송도 "한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인공위성 발사에 처음 성공 하면서 축하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북한은 작년 12월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난 결의를 받아 '취급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 미국 CNN 방송도 나로호 발사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이 이를 빌미로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전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S)의 북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틴은 북한이 나로호 발사를 이용,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중국을 상대로 노선을 바꾸도록 압박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함. CNN은 동북아 지역의 우주 발사 경쟁이 실제로는 위장된 군비 경쟁에 가까우며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이 다른 인접 국가들의 우려를 키워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관측했음. 영국 가디언은 나로호 발사에 북한이 분노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서 우주 패권을 향한 경쟁이 격화됐다고 보도함.
 -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오랜만에 북한의 실제 핵무기 역량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부 일각에서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함.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등으로 인해 미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단을 상당 부분 상실했음. 그러나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기존의 플루토늄 기반 핵폭탄 외에도 우라늄 기반 핵폭탄을 생산 가능한지, 또 핵폭탄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가 됐는지 등 핵심적인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NYT는 기대했음.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고감도 탐지장비 등을 탑재한 정찰기를 이미 배치하는 등 북한 핵실험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얻어낼 준비를 갖췄다고 NYT는 전함.

● 北김정은, 당중앙군사위 회의 주재... "중요 결론"(2/3,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라며 "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군사력) 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가 토의됐다"고 밝힘. 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했다"며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나라의 방위



- 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하지만 통신은 이 회의가 언제 어디서 진행됐으며 김 제1위원장이 회의에서 내린 '중요한 결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음. 국가기구 위에 당이 있는 권력구조를 가진 북한에서는 모든 최종 결정이 노동당에서 이뤄지며 특히 군부 및 국방 관련 문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림. 하지만 그동안 북한에서 당 중앙군사위 소집 사실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음.
 - 통신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과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을 비롯한 대연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함.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김 제1위원장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맞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 협의회'를 소집하고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음.
 -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는 제3차 핵실험을 사실상 예고한 국방위원회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열렸으며 이 협의회 이후 1주일 만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소집된 것임.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북한은 핵실험이 이뤄질 곳으로 지목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서쪽 갯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쪽 갯도 외에 남쪽 갯도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한편 현재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현영철 군 총참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북한 권력기구도'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 중앙군사위 위원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말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김격식 대장의 이름은 위원 명단에 없었음.
 - 조선중앙통신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조직문제가 토의됐다"라고 밝힘에 따라 이 회의에서 김격식 신임 인민무력부장을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군부의 인사문제도 취급된 것으로 추정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北 핵실험 앞두고 美 핵잠수함 방한..무력시위 차원(2/1, 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거의 끝난 가운데 미국의 핵잠수함과 이지스 순양함이 한국을 방문했음. 한미는 내주 초 동해안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함.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분석됨.



- 합참의 한 관계자는 1일 "한미 해군이 내주 초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종 훈련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미국 측에서 훈련 참가를 위해 6천900t급 핵잠수함 1척과 9천800t급 순양함 1척이 각각 진해항과 부산항에 입항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 해군 전력의 방한은 사전에 훈련 일정이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져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분석됨. 한미는 그간 언론에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핵잠수함의 내부 모습까지 공개하는 등 미군 전력의 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했음.
- 특히 7함대 소속 항공모함도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양측의 연간 훈련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북한 핵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힘. 미군 관계자 "핵잠수함의 방문은 오래전에 계획된 훈련 참가를 위한 것"이라며 "핵문제와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음.
- 그러나 군 고위 관계자는 "이전에 계획된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진해에 입항한 6천900t급 핵잠수함인 '샌프란시스코함'은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해군 11전대 소속이임. 길이 110.3m, 폭 10.1m로 21인치 발사관 4문이 있음. 이 발사관은 어뢰는 물론 수천km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 부산에 입항한 순양함 '사일로함'은 배수량 9천800t급으로 340명의 승조원이 탑승했음. SM-3 최신 함대공유도탄과 대지 공격용 토마호크 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하고 대잠헬기(MH-60R) 1대를 탑재했음. 동해안 일대서 이뤄지는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는 미국 전력과 함께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천600t급), 한국형 구축함, 214급 잠수함 등 10여척이 참가함.

● 차당선인, 오늘 美하원 외교위원장 접견(2/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일 방한 중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함. 박 당선인의 이번 접견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 미국 의회 대표단은 로이스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 대표적 지한파로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팔레오마베가(민주·사모아) 의원 등 외교위와 다른 상임위 중진 의원들로 구성됐음. 박 당선인과 대표단의 면담에서는 북한의 위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 방안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박 당선인이 이번 면담을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밝힐 지도 주목됨. 박 당선인은 이달 들어 중국 특사와 미국 대표단 등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 상·하원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친한파이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론자로 분류됨. 그는 최근에는 한인단체가 추진 중인 '제2의 위안부 결의안(The Second Comfort Women Resolution)'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공동 발의(co-sponsor)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또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2007년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함. 대표단의 이런 이력으로 볼 때 박 당선인과 이들의 면담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시 대북제재를 비롯한 강경 대응 방안과 위안부 문제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됨.
- 박 당선인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차 방한 중인 자크 로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별도로 접견할 예정임.

나. 한·중 관계

- **우방귀, 韓국회의장 회견 "중새지도부 중한관계 중시"(1/30, 인민일보)**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포럼(APPF)에 참석한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28일 한국 강창희 국회의장을 회견하였음.
 - 회견 자리에서 우방귀 위원장은 중한 양국은 작년 수교 20주년을 경축하고 우호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년 간 양국 간 다양한 분야 협력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고 말함. 또한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 이 지역의 중요한 국가이며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지속적으로 단결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 전략적 상호신뢰,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도 서로 긴밀히 소통하여 중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하길 바란다고 밝힘. 아울러 중국 전인대와 한국 국회는 우호적인 협력 기반을 갖추어 양국 정상, 전문 위원회, 우호 분과 간의 다양한 우호적 교류를 유지하여 정기적인 교류체제 역할을 통해 중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전함.
 - 강창희 의장은 한국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중국이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한 부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또한 한국 국회는 중국 전인대와의 우호적 교류에 매우 만족하며 정기적인 교류 체제와 우호적 분과 등의 루트를 통해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적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민간 우호를 확대해 국가 관계 발전의 사회적 초석을 다지길 희망한다고 전함.
- **임성남 급거 방중...북핵실험 막판저지 총력(2/3,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오후 중국을 급히 방문함.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북핵 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차 임 본부장



- 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고 말함.
- 임 본부장은 4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78호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특히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안정의 필수 조건이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지역 정세가 크게 악화된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짐.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중국 측에 언급할 것으로 전망됨.
 - 임 본부장은 우다웨이 특별대표 등과 면담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임.

다. 한·일 관계

- <日 아베 "위안부 쟁점화 반대"...'안전운행' 모드>(1/25,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담화 수정 등 스스로 설정한 현안 해결을 뒤로 미루며 '안전 운행'을 강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일단 경제 문제에 집중한 뒤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됨. 아베 총리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문제를 정치·외교 쟁점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고노) 담화는 당시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이므로 총리인 내가 이 이상 말하는 것은 피하고 관방장관이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아베 총리는 또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점은 역대 총리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여 마치 위안부 문제를 반성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함.
 -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일본이 고노 담화 때문에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며 담화 수정 의사를 밝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음. 하지만 지난해 12월 재집권 이후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학술적 검토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을 뿐임.
 -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변신'이 2006~2007년 첫 집권 때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 아베 총리는 당시 집권 직후 개혁, 교육개혁, 고노 담화 수정 등을 서둘렀다가 미국 하원이 위안부 관련 사죄 요구 결의를 발표하는 등 외교관계가 악화된 탓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당시 정계 은퇴 위기에까지 몰리는 등 쓰디쓴 경험을 한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미일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민감 사안에 대한 발언을 피하



- 고 있다는 관측임.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은 최대한 쟁점화를 피하려고 했다'는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엿보임.
- '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의 책임은 최대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수많은 전쟁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표현을 뒤집어보면 '다른 나라가 벌인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일본 우익의 논리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임.
 - 아베 총리는 또 개헌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교육 개혁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지론을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발언은 피했음. 개헌은 일단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96조부터 고치겠다고 설명함.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A)에 대해서는 29일 한 TV프로그램에서는 "참의원 선거 전에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가 반발을 사자 31일 국회에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우선 경제 문제에 집중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리고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한 뒤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과 함께 개헌, 역사 문제 담화 수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다만 보수 지지층이 불만을 표출할 경우 참의원 선거 이전에도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중국에 기대는 美.. '北핵실험' 위협속 G2 긴밀협력>(1/31,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 미국 조야의 시선은 중국에 쏠리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개별 국가 차원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느끼는 '고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단으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임. 또 북한 변수를 고리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 추진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국관계를 우호적인 협력관계 쪽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엿보임.
 - 미국 당국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강행의지 천명에 대응하는 기조를 보면 매우 절제돼있음을 알 수 있음. 백악관은 물론 국무부, 국방부 모두 "불필요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음. 지난주 서울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실수"라고 전제하면서도 "평양이 핵무기와 다단계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 의향이 있다"고 말함.
 - 미국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9일 "북한이 이런 길을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말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함. 동아시아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커트 캠벨 차관보는 이에 "우리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이런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전했을 것"이



라고 말함.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과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됐음.

- 미국 당국자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마련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과거와 다른 뉘앙스의 행보를 한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 '안보리 결의'라는 높은 수준의 외교적 형식에 동의한 것은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이라는 도발적 행보를 거듭하는 북한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냐고 미국 측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임.
-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에 중국이 동참한 이후 북중 관계는 냉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임. 결국 오바마 2기 출발선에서 또다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을 확실하게 견인해 북한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히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국간 '5자회담'을 미국이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단결이다. 북한이 옳은 길을 가도록 강하게 단결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나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최근 미국 내에서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불필요하게 '중국 포위' 전략으로 비치게 된 것은 미국의 실책이라고 지적함. 현지 외교소식통은 30일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오바마 2기 행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는 이란 이슈와 함께 반드시 관리해야 할 시안"이라면서 "중국의 부상 속에서 아시아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미국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함.

마. 미·일 관계

● 후루야 담당상 "납치는 최대중요 과제" (1/29, 산케이신문)

- 후루야 케이지 납치 문제 담당상은 29일, 일본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비스 북한 담당 특별 대표와 내각부에서 회담함. 후루야 케이지는 납치 문제에 관하여 "아베 정권의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호소하며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구함. 데이비스 역시 "납치 피해자의 가족을 결코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응수함.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미국과의 미약분야 협력 협정 중단 선언(1/30,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 이번에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마약 분야 협력 협정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최근 마약 거래 통제 및 관련 사법 활동에 관한 미국과의 정부 간 협정 중단에 관한 총리령에 서명함. 메드베데프 총리는 해당 협정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외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협정 파기를 지시함. 협정은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 측에 파기 통보를 하고 3개월 뒤부터 효력이 중단됨.

- 2002년에 체결된 협정은 미국이 마약 거래 차단 활동에 참여하는 러시아 사법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가 마약 퇴치 활동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된 협정이었음. 미국은 협정 체결 후 첫해에만 러시아에 1억5천만 달러(약 1천600억 원)를 지원함.
-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협정 파기가 그동안 변화한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악화한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한동안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갈등을 빚던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상대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함.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담은 대(對)러 인권법을 채택하자 러시아도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 인권법을 채택하며 맞대응함. 양국의 외교 갈등은 아직 화해를 향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러-美 외교당국, 시리아 사태 해법 두고 설전(1/31,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 외교 당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임.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함. 클린턴 국무장관이 앞서 자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제네바 '행동그룹' 회의 합의를 이행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었음.
- 루카셰비치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미국 파트너들이 공개 발언에서 시리아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을 자주 왜곡하거나 때론 전혀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고 꼬집었음. 그는 "이번 클린턴 장관 발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클린턴의 발언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려는 시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비난함.
- 루카셰비치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말 제네바에서 '행동그룹' 회의 합의문이 채택된 뒤 이를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받자고 제안하고 이 절차 논의를 위해 뉴욕에서 행동그룹 회의 실무 대표 모임을 갖자고 제안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강조함. 그는 이 같은 러시아의 제안은 서방 파트너, 특히 미국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고 누가 제네바 합의 이행에 장애물을 설치했는지를 물어보면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지적함. 루카셰비치는 그



- 러면서 러시아는 지금도 시리아 유혈사태 종식과 타협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시급한 집단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임.
-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외무장관들과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터키·쿠웨이트·카타르·이라크 등 중동지역 국가 외무장관 등은 지난해 6월 30일 제네바에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그룹'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행동 그룹은 이 회의에서 시리아 정부와 야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도 거국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시리아 측에 제안했으나 시리아 정부와 야권 모두로부터 외면당함. 외부 참가국들도 합의문 내용을 두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하는 등 이견이 불거져 합의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음.
 - 한편 루카세비치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말리 정부군과 보안군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는 "러시아는 양자 관계에서 아프리카의 우호국(말리)이 정부군과 보안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러시아는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프랑스의 말리 반군 군사공격을 유엔 결의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지한 바 있음.
 - 프랑스는 지난 11일부터 말리에서 이슬람 반군이 장악한 북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며 정부군을 도와 내전에 개입함. 말리에선 현재 3천명 이상의 프랑스 지상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말리를 포함한 15개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 군인들도 반군 격퇴 작전에 참가하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중국 "중일 정상회담, 여건 조성돼야"(1/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일 관계 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30일 "일본이 돌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적 발전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힘.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필요성 언급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일본 지도자의 의사 표명에 주목한다"며 이 같이 말함. 그는 "중국은 중일 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함.
- 이와 관련,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지난 25일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와 회견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화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이는 일본이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의 '성의 있는 조처'를 먼저 내놓아야 본격적인 중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는 29일 니혼TV에 출연해 "(중일 관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이 긴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으로부터 관계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전날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을 만났음. 양 부장은 "중일 양국이 평화, 우호, 협력의 길을 걷는 것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어맞는다"며 "중일 관계가 중요 국면에 놓인 가운데 쌍방이 역사에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다오위다오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중일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중국과 일본은 최근까지 전투기를 동중국해 상공에 경쟁적으로 투입하는 등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조성해 무력 충돌의 우려마저 나왔음.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 아미구치 대표, 무라야마 전 총리 등의 잇따른 방중을 계기로 중일 양국은 강경 대치 국면을 접고 서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임.

● 외교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표현"(1/31, 신화사)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역사를 겪은 아시아 피해 국가 국민들에게 표하는 진정 어린 입장 표명과 약속이라고 밝힘. 또한 일본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95년 8월, 무라야마 전 일본 수상이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이 과거에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사실을 인정하였음. 아울러 그는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을 후대에 알려 과거의 잘못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이 무라야마 담화를 중시하는지의 여부와 만일 새로 출범한 일본 정부가 관련 문제에 대해 태도를 바꾸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 홍레이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본이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답함.
-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식민 역사를 지닌 아시아 피해국 국민들에게 보이는 진심 어린 입장 표명과 약속이라고 대변인은 말했음. 또한 일본은 역사 문제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아시아인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역사를 거울로 삼아 관련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힘.

● 일본 오키나와 근해서 중국어선 선장 체포(2/2, 연합뉴스)

- 중국 어선이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에서 약 160km 떨어진 해상에서 산호를 잡다가 일본 해경에 붙들렸음.



- 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해경) 이시가키(石垣) 해상보안부는 이날 오키나와(沖縄)현 미야코(宮古)섬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어업주권법상 무허가조업)로 중국어선 '충양푸(瓊洋浦)F8319'호의 중국인 선장 창룽(長龍, 63)씨를 체포함.
- 이시가키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창씨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미야코섬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46km 떨어진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호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음. 이곳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미야코섬에서 200해리=370km) 안쪽임. 배에는 중국인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고, 산호 파편이 발견됐음. 중국 어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발견되자 도주하다 일본 경비함에 억류됐음. 창씨는 "산호를 잡은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어선이 이 부근에서 체포된 것은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함이 충돌한 사건 이후 처음임. 중국 어선은 담보금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 언론은 "중국 부유층 사이에 산호 장식품 수요가 늘자 중국 어선이 미야코섬 근처에서 붉은 산호를 잡으려고 한 것 같다"고 추측함.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붉은 산호는 1kg당 100만 엔(1천180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어선은 2011년 나가사키(長崎)현 앞바다와 지난해 12월 가고시마(鹿兒島)현 앞바다에서도 산호를 잡다가 적발된 적이 있음.

아. 기 타

- "양안, дя오위다오에 대한 공동수호 책임 가진다"(1/31, 인민일보)
 - 국무원 타이완사무 관공실은 30일 정례브리핑을 열었음. 얼마 전, дя오위다오(釣魚島) 문제가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타이완의 '대연당(臺聯黨)'과 민진당 일부 인사들이 дя오위다오 문제에서 타이완은 대륙과 한편에서 일본 및 미일 안보 동맹에 맞설 수 없다고 밝힘.
 - 이에 양이(楊毅) 대변인은 дя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дя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에 대한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양안 동포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가 모든 이들의 언행을 검증할 것이며, 지난 역사를 잊고 민족적 대의를 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중화인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